

15
대
대통령선거
어떻게
임할
것인가

국민승리21 기획위원회

1. 제15대 대선의 성격과 경쟁구도

1) 제15대 대선의 성격

이번 15대 대선은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치뤄진다. 15대 대선은 21세기에 경제번영과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조국을 건설해 우리 민족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나서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나라와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보수 정치권에 있어 15대 대선은 후3김 시대의 정치구도 개편을 주도할 해계모니를 쟁취하는 권력투쟁의 장이다. 진보세력에게 있어 15대 대선은 보수적인 기성 정치세력의 독점 현상을 타파하여 새로운 지향, 새로운 대안을 가진 진보정치세력을 현실정치 구도 속에 정립시키는 역사적 계기이다.

2) 선거대립구도의 형성과 변화

① 1단계 : '정권교체'를 둘러싼 3자 대립구도

정권교체는 DJ전당이 제기한 공세적 쟁점이며, DJP연합은 정권교체를 위한 필요악으로서 역대 선거에서 필패로 규명된 호남 대 비효남 구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추진되었다.

YS전당은 '세대교체'의 논리로써, 비3김 후보의 정치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정권교체의 공세에 대해 세대교체의 공세로 맞불대응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하였다. 그 산물이 세대교체, 개혁성향의 비3김 후보인 이회창의 등장이었다.

그런데 이회창은 병역특례시비, 경선과정에서 당내 역학관계상 수구파와의 결탁, 권노사면 진의 등 반개혁적인 정책시비로 인해 참신성, 도덕성, 개혁성 등 세대교체의 기수가 지녀야 할 덕목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지지율 급락과 더불어 경선불복 사태를 초래하였다.

② 2단계 : 다자간 대립구도와 세대교체의 급부상

이회창의 지지율 급락으로 인해 조순, 이인제가 출마함으로써 다자간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세대교체 대표주자로서 이회창이 탈락하고, 조순, 이인제의 출마로 세대교체의 공세적 성격이 급부상하였다.

세대교체론은 DJ로의 정권교체와 신한국당의 정권재창출을 모두 반대하는 광범한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후발 쟁점의 유리함과 40대 후보와 결합된 이미지 극대화효과로 인해 세대교체론의 공세적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회창 진영은 개혁과 강직을 내건 세대교체론의 기수로 원상복귀를 시도하느냐 아니면 정권재창출 및 정치안정을 내건 보수대연합을 추진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3단계 : DJ연합의 가시화에 따른 반DJ연합과 범여권의 합종연횡

DJ의 지속적인 여론조사 수위와 DJ연합 가시화로 인해 DJ대세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회창 진영에서는 DJ연합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반DJ연합, 조순 진영은 '건전세력 결집', 그리고 이인제 진영은 이인제-조순-신한국당내 민주계-통추의 결합 등을 내세우며, 대선에서의 쟁점

우위 차원을 넘는 세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3)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및 각 진영의 상황

최근 2달간에 걸쳐 국민회의 DJ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30%를 조금 웃도는 지지율과 지지여부와 관계 없는 당선 가능성에서 50%를 넘어서고 있다. DJ가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는 이유는 ①이회창의 상대적 지지율 하락, ②이인제의 신한국당 탈당에 이은 출마와 이로 인한 범여권의 분열, ③DJ연합의 가시화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국민회의가 순수내각제를 받아들여 DJ연합이 성사되면 약간의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일정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타정파의 반DJ연합에서 벗어나기 위해, DJ는 영남권의 한고리인 박태준과의 DJ연합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①DJ의 현 지지율은 아직 당선 가시권이 아니며, ②최근 DJ비자금 폭로에서도 보여지듯 여권의 무차별적인 DJ축이기가 시도될 것이며, ③범여권과 타정파들의 반DJ연합의 가능성 점 등에서 볼 때, 대권 레이스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J의 경우 과거에는 다자간 구도나 상대 후보자의 잘못 등 외부의 변수에 의해 당선 여부를 맡겨야 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어느때보다 자력으로서의

당선가능성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한국당 이회창의 경우 여전히 내우의 환에 시달리고 있다.

15%대의 지지율로 인해 만년 3위로 고착될 가능성이 짙으며, 또한 당내 민주계 등 비주류에 의한 후보교체론과 탈당 위협에 둘러싸여 있다.

최근 이회창 진영의 DJ비자금 폭로건은 DJ 대체론의 조기차단에 이은 이회창-DJ 2강 구도로의 전환을 위한 선거판 흔들기 전략으로서 터트린 것이나, 김철이 대선후로의 수사연기를 발표함으로써 신한국당은 더욱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제의 경우 경선불복에도 불구하고 세대교체론을 갖고 여전히 기존 정치권에 익숙한 유권자로부터 20-25%대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신당 탈당을 선언했음에도 세가 불지 않고 있는 점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기폭이 빠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인제의 노림수는 이회창의 낙마를 겨냥하면서 명실공한 범여권의 유일 후보로 부각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순의 경우 지지율이 5%대로 고착화되면서 군소후보로 추락하고 있다. 군소후보에서의 탈출과 이회창의 후보교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점지되기를 기대하면서, '전선세력 결집'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여야의 계선을 넘나드는 진권연합의 승부수

를 띄우고 있다.

총괄적으로 보아 DJP연합에 따른 DJ 대체론 대 반 DJP세력의 합종연횡 여부 및 범여권의 결집 여부 등이 판짜기 선거판을 긴장감과 흥미상태로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국민후보에 미치는 영향

세대교체는 3김 청산을 포함하되 그보다 훨씬 광범한 요구를 담고 있다. 3김 정치와 각종 정치적, 사회적 불만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세대교체라는 상징적 담론으로 집약된 상태이다.

세대교체론에 대한 지지는 안정보다 변화, 기성정치의 권위보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교체론의 성격이 유지되는 다자간 대립구도는 국민후보에게 불리한 측면과 유리한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DJP연합 대 반DJP연합으로 선거전선이 형성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정권교체론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다자간 구도가 단순구도로 축소되면서 국민후보가 제3의 세력으로 명확히 되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양 세력 간의 사활적인 쟁점화와 새 결집 등으로 인해 국민후보의 입지가 좁아지는 불리한 측면도 있다.

두가지 경우가 모두 쟁점화되면서 선거기간 전과정을 관통하는 주요 이슈로 될 가능성이 크다. 세대교체론의 경우 이에

닫긴 미분화된 변화 욕구를 분화시키는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또한 정권교체의 경우 입지 확보를 위한 정체성과 진보성을 부각시키는 문제가 국민후보운동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민승리 21』의 기본 목표와 대선 전략

1) 기본 목표와 주요 과제

제15대 대선의 기본 목표

의미있는 득표로써 진보정치세력이 현실 정치세력으로 정립할 수 있는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다.

제15대 대선의 성과로써 향후 진보정당 건설의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국민승리 21』 지부를 건설하여 앞으로 건설할 진보정당의 조직적 배대를 구축한다. 대선 이후의 정치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 정치적 훈련을 경험한다.

대통령선거 운동을 통하여 98년 5월 지방선거를 실질적으로 준비한다.

주요과제

민주진보진영이 국민으로부터 유력한 선택대상의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해야 한다. 97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노총이 재야와 연합하여 독자후보를 내면 13.8%가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그동안 각종 선거에 참여한 사례를 종합해 보면 민주진

보진영의 후보는 고정적 지지자를 평균 7% 정도 가지고 있다. 14대 총선에서 재야와 노동계 후보 득표율 평균은 6.97%였다. 따라서 민주진보진영의 고정적 지지자와 정치개혁 및 민생경제의 안정을 열망하는 유권자를 조직한다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대상의 유력한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지율을 얻기가 그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대선구도는 편파적인 언론 등에 의해 5자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 ①6자 구도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6자의 후보로 알려지면 그 인지도 자체로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②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정치권의 합종연횡에 따라 다자간 구도가 3,4자 구도로 단순화될 소지가 있다. 단순 구도 속에서 보수 대 진보간의 명확한 세력구도로 몰아가면 국민은 누가 진정으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 진보세력이 합심 협력해야 한다.

국민후보의 출마와 『국민승리 21』의 출범은 그간 민주진보세력의 총합이다. 이 총합된 역량으로 향후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와 정치조직 건설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국민승리 21』의 지부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국민승리 21』의 각 지역본부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선을 통해 진보세력은 국민에게 정체성(Identity)을 가인시켜 대안있는 정

치세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국민은 계야와 민주노총 등 진보세력에 대해 도덕적이기는 하지만 집권세력으로서는 검증이 안됐고 웬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통해 진보세력은 깨끗한 정치, 개혁적인 정책, 그리고 21세기 비전들을 제시하여 국민의 가슴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선거전략

선거전략의 기초

국민후보의 정체성과 진보성을 명확히 하고 지지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급투표 전략과 집단이익 고취전략을 조화, 병행해야 한다.

일반대중을 무차별적인 대상으로 하는 초계급투표전략을 가지고서는 기존의 정치세력 중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유사세력과의 차별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계급투표전략에 입각하여 국민후보의 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후보는 일하는 사람, 성실한 납세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후보이다. 국민후보는 고용인청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대중투쟁을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사면반대, 김철철 석방반대 투쟁을 전개할 국민운동체를 만들어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계급투표전략과 아울러 집단이익 고취

전략을 조화,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정치지형의 조건상 이데올로기적 추상개념을 명확히 사용하거나 준이데올로기적 추상개념을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치적 쟁점 형성과 지지 확보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 '민중후보 백기완, 가자 백기완과 함께 민중의 시대로' 등은 정치적 지지가 있는 메아리로 일방적 메시지 전달만으로 그치고 만다. 분석해보면 백기완후보 득표 결과의 대부분은 대졸, 지식계층, 화이트칼라였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유권자의 의식상 계급투표 성향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집단이익 개념을 과감히 도입하여 대중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계급투표전략에 기반한 차별화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문제제기와 해결책 제시만이 아니라 현안과 결합하여 문제해결 운동을 벌이는 세력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할 후보와 집단으로 인식되어 대안세력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진보정당 건설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표 감소와 지속성에 대한 회의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후보, 국민승리 21, 대선운동, 지방선거운동 그리고 향후 창당할 조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미징 통합(CI) 작업을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진보세력의 정체성을 명확히 심어줘야 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독자적 반대세력이 아닌 대계 집권세력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국민후보의 득표전략은 ①기반계층, ②

반이회창 비DJ 계층 흡수, ③이인제와의 차별화 등이다. 여기에서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우리 진보개혁의 이미지와 지지층이 겹쳐 있는 유사세력인 이인제 진영을 주공격대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수구보수세력으로 대표되는 신한국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지지기반(주요 표적 집단)

우리 경제의 성장을 현장에서 추진해 온 주력인 봉급생활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추진해 온 주력인 30대 사회인들이다. 회사일에 ◎겨 가정을 제대로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일반 시민, 그러나 청춘을 바쳐 일해도 언제나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정리해고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일하는 사람들이다. 불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 비해 과중한 세금을 물고 있는 직장인들이다.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 속에서 회사에서 ◎겨나는 순간, 실업자의 서글픈 인생을 살아야 하는 노동자계급이다. 특히 80년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봉급생활자이다.

국민후보의 이미지 메이킹

국민후보는 합리적 진보주의자이다. 수십대에 노동운동을 시작한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다.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민주노총을 탄생시킨 산파이다. 지난 겨울 총파업을 국민적 지지 속에서 승리로 이끈 합리적인 지도자이다. 국민후보는 파리티파원을 지내 국제정치 감각을 지닌 후보이

다. 국민후보는 일하는 사람, 성실한 납세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후보이다. 땀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생활을 꾸려가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대다수 국민의 애환을 제대로 체득한 후보이다. 20년 이상 근로소득세를 낸 후보이다. 해고의 아픔을 경험한 후보이다. 노동자들이 파업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후보이다.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후보이다.

국민후보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후보이다.

국민후보는 대중투쟁을 함께 하는 후보이다.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석방반대투쟁을 전개한다.

국민후보의 좌표와 지향(포지셔닝)

후보(인물)

- 국민후보는 합리적 진보주의자이다.
- 국민후보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다.
- 국민후보는 봉급생활자와 납세자의 대표이다.
- 국민후보는 복지대통령(사회보장제도의 전문가)이다.

조직(조직성원) : 『국민승리 21』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다.

조직(조직성원) : 『국민승리 21』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다.

중심 컨셉트 : 21세기 사회보장 개혁명

사회보장 대혁명의 함의

국민후보의 노선은 반(反)제벌 반(反)특권 사회보장 대혁명이다. 국민후보는 3%의 제벌과 특권층을 제외한 97% 다수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하기 위해 선거에 나왔다.

지금 제벌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고 공룡처럼 성장하여 무소불위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벌에 대한 통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국민후보는 반특권을 기본 정책으로 한다. 일체의 특권(생활 속에서 느끼는 차별과 일부 계층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특권)과 특권을 이용한 비리구조를 척결할 것이다. 기회균등을 위해 일체의 차별을 철폐한다.

사회보장 대혁명의 요체

국민후보는 사회보장 대혁명을 통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복지 선진국을 구현할 것이다.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사회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보험을 대통합할 것이다.

사회보장의 주 내용은 주택, 의료, 교육비를 국가의 책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5대 질병은 의료보험으로 무한책임, 무상의료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하며, 무상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을 사회보장의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선거의 특징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때와는 달리 철저히 마스크에 의해 치뤄질 것이다. 선거의

70% 이상은 언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TV, 라디오, PC통신 등 언론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 언론을 의식한 후보 일정 만들기, 끊임없는 기사거리의 제공, 언론과 호의적인 관계 만들기 등이 몇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의 견제, 제도 언론의 편파 방송 등으로 인해 국민후보가 마스크를 쉽게 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진영은 마스크 선거에 이상 가는 조직활동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에서 70% 이상을 대중운동 방식을 통한 조직선거로 치뤄낼 수 있어야 한다.

대선을 통해 진보민주진영의 정치조직을 성과로 남긴다.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를 결집시켜야 한다. 교수, 변호사, 종교계, 문화계 인사 등 소위 '여론 주도층'과 사회 시민운동의 지도자를 적절한 형태로 참여시켜야 한다.

위로는 중앙조직을 최대한 효율적인 형태로 재편한다. 아래로는 참여 단체 회원을 사군구(가능하면 선거구) 지부로 회원화한다. 그리하여 지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이후 지방선거를 대비한다.

회원을 적극적인 선거운동원으로 만들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선거운동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가입원서 받기운동(100만명 목표)을 전개한다. ❖